



주 제:	“만남”	“사순 제 5 주일”	2008년 3월 9일
복음 묵상:	요한 11,1-45	에제 37,12 L-14	로마 8,8-11

사순 5 주일인 오늘,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라자로는 살아납니다. 죽었던 라자로는 살아납니다.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이 세상 사람이 됩니다. 라자로는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11 장 43 절)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더 깊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과 만났지만 오늘의 만남은 더 의미 깊은 만남입니다. 라자로는 살아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태생 소경과 같이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육에서 영으로, 썩어 없어질 것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뭔가 변화를 만납니다. 라자로 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변화를,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11 장 25 절)이신 분임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새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맛보게 되었고, 관심없던 것과 모르던 것에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원주 배하정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성가대 소식

- * 이제 부활절이 앞으로 2 주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난 주에는 미사곡, 거룩한 주님, 문들어 머리 들라, 기억하라, 한 시간도,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성지 주일과 성삼일에 부를 노래를 연습하였습니다.
 모든 곡을 다 준비하지는 못하였지만, 미사곡(각 파트별), 기억하라, 문들어 머리 들라.를 본당 웹에 올려 놓았으니 연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월 9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 이 시작됩니다. 한 시간 빨라지니 잊지 마세요.
- * 부활절 성가 연습 스케줄
 - 매주 아침에도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성삼일 전례를 위한 성가 연습을 할 예정이오니 시작시간 **(9시 15분)을 엄수하시어** 제때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3/9: *미사곡 * 거룩한 주님 * 문들어 머리 들라 * 기억하라 * 성주간 성가 *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 3/16: *미사곡 * 거룩한 주님 * 문들어 머리 들라 * 기억하라 * 성주간 성가 *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기도 요청

- 안 영희 세실리아 자매님 5월 귀국 예정으로 한국 방문을 떠나셨습니다.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최 주남 예로니모 형제님과 최효원 도미니카 자매님 부부 ; 3/14일부터 3/30일 예정으로 유럽 성지 순례를 떠나십니다. 성지 순례중 주님과 만나 좋은 시간 가지시고 건강히 돌아 오시길 기도합니다.
- 모든 성가대 가족님들은 이 사순 시기에 풍성한 전례와 특강에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요한 11,26)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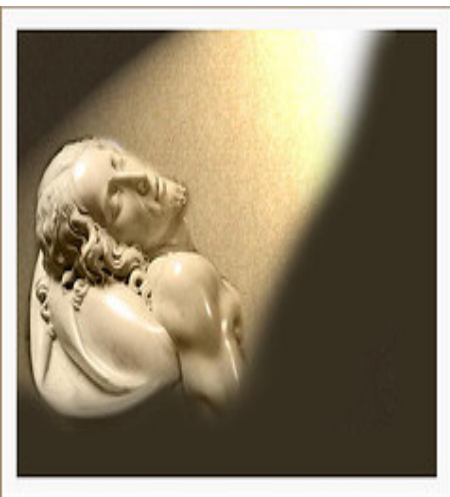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다니아 동네에 라자로라는 병자가 있었다. 앓고 있는 라자로
 마리아의 오빠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는
 여자였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했다. 예수께서는 그 전갈을 받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 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베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를 찾아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1분 명상

· '사순절 전례의 핵심' ·

이제 사순시기의 거의 마지막을 지나며 그동안 지나친 사순
 주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의 깊은 뜻을 새김질 합니다.



- , 사순 1 주, 죄의 근원인 악마의 유혹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광야 체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이시오
- (사순 2 주 : 영광스런 변모), 영원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살아
 계신 '물' 이시며
- (사순 3 주 :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어둠을 밝히시는 빛
- (사순 4 주 : 실로암 눈먼 사람 치유)이신 주님이심을 매주
 성경 말씀은 소개합니다.
- 이제 사순 5 주는 죽음을 다스리고 '생명' 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나타납니다.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라자로의 소생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드러날 부활의 영광을 위한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 신비의 절정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이 결정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